

# 새한철강 끝내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 등서 납품대금 못받아 자금난

철강유통 1위 업체 … ‘부도 도미노’ 우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국내 철강 유통 1위 업체 (주)새한철강이 자금 난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성원건설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납 품대금을 받지 못한 탓이다. 건설업계 협력·하청업체 ‘부도 도미노’의 신 호탄이 아니나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1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 하남산단에 본사를 둔 (주)새한철강이 이날 오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

다.

새한철강은 신청서에서 “자체 주 정한 계속 기업가치는 441억원인데 비해 청산가치는 217억원에 불과하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 변제 기간이 늦춰지면서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단 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만간 채무자인 새한철강에 대한 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친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

다. 법원은 통상 1~3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합당성 여부를 심의하며, 각될 경우 해당 기업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새한철강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남양건설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외상 매출 채권) 245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렸으 며, 미결제 할인 이율도 1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채권 은 행인 광주은행에 300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한철강은 자회사인 (주)새한종 합건설이 지난해 3월 워크아웃(기업 개선절차)에 들어가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상

한 압력이 거세지자 6개월 뒤 새한철

강마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 경기 침체로 새한종합건설과 지씨엔 등 관계사에 대한 자금 수혈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 유동성 위기를 앞당겼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산광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새한철강은 철강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삼성철재를 모태로 1988년 설립됐다.

지난해 매출 1천896억 원에 종업원 수 500여 명으로 15년째 철강유통 부문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연간 당기순이익은 40억~54억 원을 유지해 왔으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2008년 210억 원, 지난해 2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

무안 한중산단 PF 조성 ‘탄력’

SK증권, 日 투자회사 참여키로